"머리 잘 만져줘 고마워요"…미용실 벌써부터 선수들 북적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촌식이 지난 5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선수촌에서 열 렸다. 대회 관계자들이 태극기, 광주시기, FINA(국제수영연맹)기를 게양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WORLD

■ 선수촌 개촌 이모저모

피트니스센터 선수들 구슬땀 식중독 예방 등 위생과의 싸움 무안공항 스페인 선수 환영식

"아주 훌륭합니다.(엄지척)", "머리를 너무 잘 만져줘서 고마워요. 고향으로 초 대하고 싶어요."

지난 5일부터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 회에 출전할 각국 선수단이 입촌하는 등 대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선수촌 아파트에 는 벌써부터 외국 선수들이 즐겨찾는 공간 이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은 미용실. 한국 대표팀 선수들은 물론 미국 아티스틱 수영 선수 등 해외 여자선수들이 미용실을 찾고 있다.

여자 선수들은 화려한 변신보다는 머리 카락을 살짝 다듬거나 가벼운 웨이브를 넣 고 머리 중간중간 포인트를 넣어 너무 과하 지 않은 그라데이션 스타일로 변신했다.

김남희(여·43) 선수촌 미용실 원장은 "선수들은 머리를 올려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스타일을 바꾸기 보다는 가벼운 연출 로 뒷머리카락에 웨이브를 넣거나 가볍게 머리카락을 정리했다"면서 "한번 머리카락 을 손질한 선수들이 다른 선수들을 데려오 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입촌한 선수들은 선수촌 내에 마련된 피 트니스센터에서 주로 하체 운동을 하고 있 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촌한 미국·독일 선 수 등은 파워랙, 스쿼트 기구, 사이클 등을



미국 대표팀 관계자가 지난 6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선수촌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고 있다.

〈김남희 선수촌 미용실 원장 제공〉

통해 하체를 단련하고 있다.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메르 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노로바이러 스' 감염병이 조직위를 괴롭혔다.

이번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여름에 열리는 대회특성상 위생과 싸우고 있다.

선수와 임원 등이 대회 기간에 이용하 는 선수촌 식당에서는 일회용식기를 사용

해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수영선수들을 위해 콘돔 5만개를 준비했 다. 선수촌 내 의료센터 (Medical Center) 와 객실 입구 등 에 비치해 선수들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집어갈 수 있도록 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위생과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등 안전한 성생 활을 위해 넉넉하게 준비했다"며"수시로 자원봉사들이 돌면서 선수촌 내에 콘돔을 채워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5 광주

세계 각국의 참가 선수단이 속속 광주를 찾고 있는 가운데 첫 환영행사가 전남 무 안공항에서 열려 눈길을 모았다.

하늘색 티셔츠를 입은 200여 명의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시민 서 포터즈들은 7일 무안국제공항 입국장을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출국장 게이트가 열 리고 스페인 선수단이 들어서자 산여울 연주 단의 힘찬 연주와 함께 서포터즈들의 환호성 이 무안국제공항 입국장을 가득 채웠다.

사전에 환영행사 계획을 알지 못했던 스 페인 선수단은 서포터즈들의 우레와 같은 함성 소리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휴대전화 를 꺼내들어 동영상을 찍기도 했다.

"Bienvenidos a Gwangju"(광주에 오 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포터즈들은 미리

하계유니버시아드에는 콘돔 21만개가 배 연습한 스페인어를 선수단에게 인사하며 환호로 이들을 맞았다.

> 선수단 대표에게는 꽃다발과 함께 마스 코트인 수리, 달이 인형이 증정됐다.

> 루이스 스페인 선수단장은 "환대를 기대 하지 않았는데, 이런 큰 환영을 받아 너무 감사하다.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내도 록 하겠다"며 "미리 알았더라면 한국어 몇 마디 정도 연습해서 왔을 것"이라며 반가

> 일부 스페인 선수들이 한국말로 "감사합 니다"라고 말하자 환영인파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스페인 선수단은 버스에 오르기 전 사물놀이패 '만월'의 흥 겨운 가락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다.

> 스페인 선수단은 버스에 오르며 서포터 즈들과 스페인어로 파이팅을 뜻하는 '아니 모'를 외치며 선수촌으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했다. /김한영·김민석 기자 young@

12~28일 수영대회 기간 범시민 차량 2부제

시·자치구·유관기관은 의무

광주시는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를 앞두고 범시민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고 7일 밝혔다.

대회 성공개최와 시민의 교통 불편 최소 화를 위해 수영대회 기간(7월 12일~28일) 자율 시행한다. 다만, 광주시와 자치구, 유 관기관은 수영대회 개·폐회식이 열리는 12 일과 28일은 차량 2부제를 '의무' 시행한 다. 이에 이날 소속 직원과 민원인은 짝수 번호 차량만 시·자치구 등 주요 공공기관

청사 진출입이 가능하다. 대상은 10인승 이 하 비사업용 승용(경차포함)·승합차다. 수 영선수권대회 지원차량과 외교·보도용 차 제 방식은 번호판 끝번호가 홀수이면 홀수 날만, 짝수이면 짝수날만 운행하면 된다.

광주시는 수영대회 기간 중 시행되는 범 시민 차량2부제 시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 해 시내버스와 택시 1만대에 홍보스티커 를 부착하고, 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 보하고 있다.

또 5일부터 주요청사 진출입로 등에 홍

을 전개 중이다.

한편, 선수촌 입촌식부터 마스터즈대회 존(광산구 우산동 7월5일~8월18일) 일대 와 선수권대회 개·폐회식장 (7월12일 광주 여대 7월28일 아시아문화전당 및 남부 대), 마스터즈대회 개·폐회식장(8월11일 남부대 8월18일 5·18민주광장·ACC문화 광장)과 주경기장인 남부대에는 일반차량 이 전면 통제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마스터즈 대회 수구 세계 40개 클럽팀 참가

남자 34개·여자 6개 팀 조 추첨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수영 동호인 행사가 열렸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 회는 지난 5일 조직위 회의실에서 국제수 영연맹(FINA) 도린 티보즈 마스터즈 위 원장과 조영택 조직위 사무총장, FINA와 조직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스터 즈 대회 수구 조 추첨 행사를 했다.

전 세계 수영동호인들의 축제인 마스터

즈 대회의 올해 수구 경기에는 남자 34개 팀과 여자 6개 팀이 참가한다.

또 여자팀은 여자 수구 강국인 미국 2개

팀, 이탈리아 2개 팀, 체코, 호주가 각각 1

연령별로는 남자 선수들이 60세 이하 그 룹을 제외하고도 65세부터 74세까지 7개 팀이 출전했으며, 여자 선수들은 $30 \sim 40$ 세 5개 팀과 50세 1개 팀이 출전했다.

이날 조 추첨 행사에서는 연령 그룹 순,

남녀 그룹 순으로 순차 추첨했으며 경기를 치를 남자 34개 팀 7조, 여자 6개 팀 1조를 이 가운데 남자팀은 미국이 10개 팀으로 확정했다. 마스터즈대회 수구 경기는 8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남부대 수구경기 장에서 대항전으로 진행되며 1~3위에 메 달과 수리·달이 인형을 함께 수여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

> 올해 제18회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에서는 '선수권대회'가 7월 12일부터 28일 까지 열리며, 마스터즈 대회가 8월 5일부 터 18일까지 이어서 개최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적워주택 매매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 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이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810㎡, 건평: 83㎡, 매매가: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810㎡, 건평: 83㎡, 매매가: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660㎡, 건평: 83㎡ 매매가: 1억7천5백만원

☎010-4061-7200